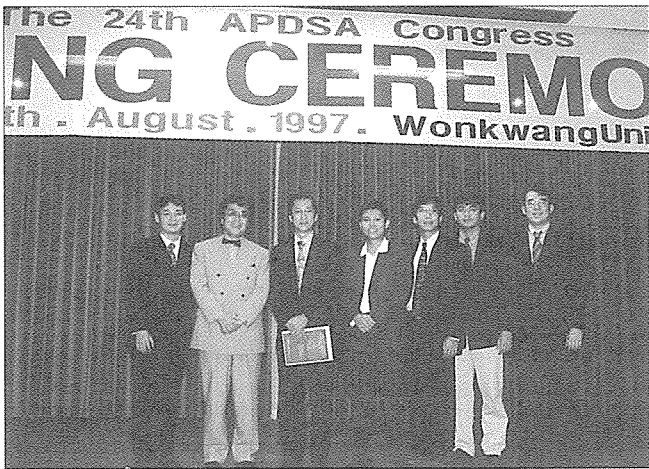


## 21세기 치과계는 우리가 주역

# 아·태 치대학생협의회 한국대회

### 색다른 젊은 시절의 경험

**누** 구나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고 과거의 모습에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느낌이 아닌가 한다. 더욱이 학생시절의 꿈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전체 인생에서 모름지기 그 의미가 남다른 것이 사실이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연자와  
각국대표들

치과계도 젊은꿈을 가진 치과대학생들이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색다른 경험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월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한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치과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관심사와 우정을 나누는 아주 뜻깊은 만남의 행사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APDSA한국대회를 치렀다.

일주일 동안 원광대학교 기숙사에서 숙식을 같이하며 함께 한 이들의 이번 만남은 치과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이 21세기 치과계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란 관점에서도 색다른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8월10일 대회가 시작되어 16일 마무리까지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개막식을 기점으로 각국의 문화행사, 논

문경연, 한국민속촌·대전엑스포 견학, 스포츠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생다운 패기와 열정을 작렬하는 태양이 무색하리만치 선보였다.

### 모든 어려운 여건속에 원만한 대회운영

**행** 사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학생들 스스로 준비해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같은 난관의 반면에는 '해냈다'는 충만한 자긍심이 학생들을 한차원 높은 성숙한 모습으로 올려놓았고 그 바탕이 앞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해 나갈때 쬐에는 보이지 않는 저력으로 분출될 수 있기에 이번 경험은 학생들에게는 더없는 산교육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치과대학생들의 자기발전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APDSA(Asian-Pacific Dental Students'

Association:아시아-태평양 치과대학생 협의회)는 창설 이래 매년 회장을 선출하여 회장국가에서 대회를 순회 개최하여 나름대로의 영역을 확보하는 한편 APDF의 산하 조직이며 IDSA(International Dental Students' Association:국제치과대학생협의회)와도 긴밀한 교류를 해오고 있다.

현재 APDSA의 회원국가는 호주, 캄보디아,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한국의 10개국이며 준회원국은 인도, 몽고, 베트남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치과대학 52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모임은 어떤 정책을 논한다거나 회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성인들의 단체가 아닌 말그대로 순수한 젊은 학생들의 결사체로 조직의 완벽함이나 넉넉한 재정 등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러 형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사를 하는 일본학생 대표단

###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사실 확인

**언** 어와 피부색이 다르고 인식과 관념,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은 이들은 만남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얻었을까?

물론 개개인 각자의 생각이 틀리기에 한마디로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해나가야 할 동등한 입장의 학생들로서는 여러면에서 배운점이 많았을 것이다.

우선 외국 학생들과 대화에서 서로가 몰랐던 많은점들을 깨우쳤을 것이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또한 색다른 시각과 그에 따른 보편성의 확인 등 전체적인 면에서 보다 건강한 정신과 시야의 확대가 그들에게는 무형의 자산으로 가치있게 그들의 마음속에 투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진전된 공동체 의식의 깨우침이며 지구촌 한가족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닐까 한다.

대학생들로서는 적지 않은 경비와 시간을 투자 한다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이며 개인적인 희생도 뒤따를 것으로 생각되지만 돈주기도 못산다는 젊음이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이번 행사는 그러한 그들에게 경험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좋은 기회로 각자의 마음에 각인될 것이다.



제24회 APDSA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해 서로를 이해하는 한편 우정을 나눴다.